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YWCA

2023년 3·4월호  
MAR·APR Vol.583

### 특집 탈핵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과 해법  
핵발전 사랑이 내팽개친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리2호기 수명만료, 영구정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이슈포커스

지역 RE-100 활동가 연구 조직

### 평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정상회담

###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나는 신이다> 가남긴 질문들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안동	054.854.5481
(사)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광명	02.895.1966	(사)양산	055.367.1144
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군산	063.462.4491	원주	033.742.6090
(사)김해	055.332.6000	(사)의정부	031.853.6332
남양주	031.577.7762	익산	063.857.8910
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제천	043.645.2580
(사)동해	033.531.3007	(사)진주	055.755.3463
(사)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천안	041.575.0961
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사천	055.833.2344	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서천	041.951.6400	파주	031.945.5998
성남	031.708.2503	평택	031.651.7701
(사)세종	044.865.2432	(사)포항	054.274.4444
속초	033.635.3523	하남	031.793.7771
(사)수원	031.252.5111		
(사)순천	061.744.7990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문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 Y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 W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 C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 A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1922 · 2022



# 2023.3·4 한국YWCA



### 표지이야기

오랜 가뭄을 가시게 한 반가운 비가 내린 식목일 다음날 4월 6일, 전국의 YWCA활동가 300여 명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젖은 아스팔트에 걸연히 앉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 저지하라!

### 2023년 5·6월 주요일정

- 5월 2일 월레아침기도회
- 5월 2일, 16일 성평등정책 아카데미
- 5월 12일~13일 법인이사 워크숍
- 5월 15일 은학의집 개관 기념예배
- 5월 16일 2023 여성주의 연합예배
- 5월 23일~24일 2023 YWCA 신임실무활동가교육
- 6월 1일 월레아침기도회
- 6월 둘째주 고 주선에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 6월 20일 정전 70년 여성평화포럼(예정)
- 6월 23일~7월 3일 법인이사 해외연수

### 제59권 제2호 통권 583호

2023년 4월 24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이현주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여성리더들: YWCA의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 함희경
- 05 **월례기도회** 예수를 따른다는 것 | 김기동

### 특집 탈핵이 기후위기 해법이다

- 06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점과 해법 | 김혜정
- 09 핵발전 사랑이 내팽개친 탄소중립 기본계획 | 김현우
- 11 고리2호기 수명만료, 영구정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이경아

### 이슈 포커스 지역 RE-100 활동가 연구 조직

- 13 YWCA 다시 100년, 지역의 자리로부터 | 유에스더

- 16 **평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정상회담 | 전진호
- 18 **소비자 운동**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소비자 기만 | 안정희
- 20 **YWCA 변화와 혁신13** 우리 단체 후원회원의 기부금, 모집 등록 대상일까요? | 이희숙
- 22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나는 신이다>가 남긴 질문들 | 오수경
- 24 **청년토크** 사순과 부활을 기억하는 청년 | 대학·청년YWCA
- 26 **말씀묵상**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임계점 | 김명수

- 28 **이달의 현장 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YWCA 캠페인 | 이한빛
- 30 **이달의 현장 ②** 3.11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부산 탈핵행진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 ③**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장세영
- 34 **이달의 현장 ④**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 | 이은혜
- 35 **이달의 현장 ⑤** 신임이사교육 | 정서연
- 36 **이달의 현장 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 편집실
- 38 **이달의 현장 ⑦** 4.14 기후정의파업 | 한기연
- 40 **모금이야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모금

- 41 **성명서** 한국YWCA연합회 3.8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 42 **기자회견문**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 43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YWCA 성명서

- 44 **연합회 소식**
- 49 **연합회 모금현황**
- 50 **회원YWCA 소식**

## 여성 리더들 YWCA의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함희경**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혁신의 주체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영리단체들의 지배구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며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YWCA의 지배구조 속에서 활동해온 자원활동가들의 어떠한 리더십 특성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YWCA가 추구하는 사회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YWCA 자원활동가 리더들이 말하는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이끈 리더십은 무엇인가?

2020년 7월 연합회 실행위원들 중 임원 경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원활동가와 지역의 회장을 역임하고 연합회 지역대표 실행위원인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기독교 정체성/절대적 신앙’, ‘협력’, ‘리더 양성’, ‘헌신’의 최종 4개의 코드로 정리되었다.

YWCA를 지속가능하게 했던 자원활동가 리더십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는 하나님, 신앙, 목적론이었고 이러한 단어들을 최종 기독교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기독교 정체성은 리더 개인의 기독교적 신앙인 동시에 기관의 설립목적과 배경이다. 리더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 리더십이 발현되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개인의 절대적 종교적 신념이나 정체성의 도출은 리더십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리더의 특성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헌신이다. YWCA 리더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 활동에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쏟아 붓사하는 리더의 특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헌신으로 본다. 이러한 헌신은 개인의 신앙에 기인한다. 면담자들은 선배들의 헌신을 관찰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은 YWCA 리더로서 계승해야 할 특성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리더십 연구가 개

인적인 특성을 넘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특성은 협력하는 리더이다. 면담자들은 한 사람의 영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리더십보다는 집단지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적인 구조 안에서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며 위원회와 같은 회의를 통하여 함께하는 집단지성의 리더십이 발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간, 자원활동가 간의, 그리고 외부 기관과 연대할 수 있는 리더들의 협력을 리더십의 특징으로 보았다. 협력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여성 리더십의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이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네 번째 특성은 리더/회원을 교육하며 양성하는 리더십으로 회원과 그 회원 중에서 리더를 키우는 것이 YWCA 리더십의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력개발 등의 기회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리더십은 있었지만, 다른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에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십은 본 연구의 리더십에서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101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YWCA의 자원활동가 리더들이 말하는 YWCA를 지속가능하게 이끈 리더십에 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듣고, 직접 경험한 선배 자원활동가들과 본인 스스로 리더로서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의 해석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YWCA 자원활동가 리더십 특성의 도출을 통하여 자원활동가의 역량 개발과 YWCA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 예수를 따르다는 것

요한복음 2:13-16



**김기동**  
인도네시아 압디엘신학대학 교수

어느 유월절 순례자들을 기다리는 명절 대목 즈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제물로 팔릴 동물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돈통을 쏟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도대체 어떤 급박성이 있길래 예수님은 설명 한 마디 하지 않으시고 먼저 상을 뒤엎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며, 장사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즉각 애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고, 무너진 건물터미에 깔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진 현장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이상한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사방 무너진 집터미에 멀쩡히 서 있는 한 건물, 카르만마라슈 지역의 토목공학회관 건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남부 하타이 지역 에르진이라는 소도시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99년 튀르키예 북부에서 일어난 7.8의 지진으로 1만 7480명이 죽은 후, 튀르키예 정부는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법제화되었고,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보강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토목공학회관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기준에 맞춰 건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르진 시장은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여 건립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건설업자의 원성이 높았지만 이번 지진을 통해 그 강직함의 결과가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그 특징 중의 하나를 ‘초연결성’(hyper-connected)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계는 초연결성을 지닌 생명체였습니다. 평화롭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초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내가 사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です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에너지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일본 핵발전소의 폭발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동남아시아 작은 마을의 상습 침수문제는 좋아하는 새우 한 마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거대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묵묵한 부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권리를 복원해 주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픈 자가 더 관심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손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손해와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다고요? 너와 나의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세상은 더욱 피폐해져 상호연대는 점점 더 파괴되고, 경제적 논리만이 사고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전 뜰에 서서 소수의 이익추구, 불의와 부당함, 차별과 속임수 앞에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



생물질의 섭취보다 적은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 안에 더 많이 농축된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연구결과도 있다. 모든 방사성물질은 음식이나 물,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DNA 구조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여러 기관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100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이다. 해초류, 물고기 등 먹이 사슬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베타방사선을 방출하고,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으로 DNA 구조가 손상되면 세포 파괴와 유전자 변형으로 암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탄소-14는 방사능의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730년이다. 알프스 정화한 오염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스트론튬90은 300년간 방사선을 방출하며 칼슘처럼 뼈와 치아에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백혈병이나 뼈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흡수한다.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 부르며 삼중수소만 희석해서 방류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탄소-14, 스트론튬 90, 요오드129 등 방사능 독성이 높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방사성핵종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삼중수소 희석만 강조하며 고농도 방사능오염수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

### 방사능오염수 방류되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위험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육상보관 방안은 일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다.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원유 비축 탱크처럼 견고한 탱크를 증설해서 오염수를 저장하면 된다. 기존 원전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드럼통에 저장하는 것처럼 저준위 오염수의 경우 시멘트 모래와 같이 모르타르 고체화해서 탱크에 넣어도 된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증설할 부지도 충분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각 국가 입장

국가	대응	결론
태평양 섬나라	태평양도서국포럼,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분야별 국제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해 1년 동안 검증	방류 연기
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팀 참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개별 분석	특별한 입장 없음 (방류 결정 때는 반대)
대만	개별적으로 전문가 일본 파견해 독자 검증	특별한 입장 없음 (방류 결정 때는 반대)
중국·러시아	IAEA 모니터링팀 참여	방류 반대
미국	IAEA 모니터링팀 참여	방류 지지

※ 대만은 IAEA 비회원국 출처: 김소연, 한겨레, 2023.4.11

한국 정부는 명확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잠정조치'(유엔해양법위반 여부 최종 판단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일종의 가치분신청)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2항은 '해양오염이 자국밖에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WTO(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9년 4월 상소심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PIF 전문가 자문단의 분석 자료와 국내외 자료를 취합하여 대응 논리를 만들고, 태평양 도서국가와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수입규제조치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를 기본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2013년 9월부터 시행)도 무너질 수 있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WTO 상소심 승소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부를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가 목전에 있다. 시민사회도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 연대활동과 한국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이 절실하다. 

# 핵발전 사랑이 내팽개친 탄소중립 기본계획

## 김현우

탈성장파 대안 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것으로 정부의 수많은 탄소중립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준비될 때부터 과연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공청회 하루 전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회 보고마저 생략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큰 오점을 남겼다. 기후운동 단체들은 이 계획은 '기후악당 국가'를 자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부담 줄여주고 핵발전 비중은 확대한다

국무회의가 의결한 기본계획은 탄녹위가 3월 21일 공개한 초안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우선 문제인 정부 때 상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660만 톤으로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유지했다. 이는 파리협정 이후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유엔에 보고한 것이므로 바꿀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 정부 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내용과 바뀐 게 몇 가지 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원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4.5%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기본계획은 이를 11.4%로 낮췄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은 810만 톤 줄여준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부문 목표를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핵발전 비중 확대 기조와 관련된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지난 해에 탄녹위가 기존의 탄소중

립 정책을 평가했던 구절에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탄녹위는 기존 시나리오는 정책수단의 구체성과 이행 관리가 미흡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기에 비현실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추고 무탄소 전원(이라고 주장되는) 핵 발전을 늘리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 참여와 소통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답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협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국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일관성 부족으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감축 부담을 지웠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다. 탄녹위가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면서 산업계와는 별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는 배제했던 것은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준다.

또한 탄녹위는 국제협상과 녹색성장 시장 개척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자(first-mover)보다는 추종자(follower)에 가까운 역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기업 중심으로 기술과 시장을 통한 해법에 주력하겠다는 윤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오히려 현실성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본계획의 가장 큰 기동인 발전 부문 감축 정책의 방향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

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은 다소 감축하지만 역시 두드러지는 것은 지금 27% 정도인 핵발전의 발전 비중을 2030년에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로 늘린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뒤집은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핵발전을 어떻게든 30%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발전원의 목표를 구성하는 것이다.

핵발전 30%는 어떻게 가능할까? 제시된 방안은 문 정부가 취소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핵발전소, 즉 노후한 핵발전소 10기를 수명 연장해서 운전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이미 지난 연초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 재개를 기정 사실화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개가 아니라 취소된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부터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시 진행해야 하여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역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술도 적용해야 한다. 핵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만큼 증가할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는 법률적 근거와 지역 협의에서 거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영광을 포함하여 모든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시작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현실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21.10월)	수정 NDC(23.3월)
배출량	합계	436.6(40.0%)	436.6(40.0%)
	전환	149.9(44.4%)	145.9(45.9%)
	산업	222.6(14.5%)	230.7(11.4%)
	건물	35.0(37.8%)	35.0(32.8%)
	수송	61.0(37.8%)	61.0(37.8%)
	농축수산	18.0(27.1%)	18.0(27.1%)
배출	폐기물	9.1(46.8%)	9.1(46.8%)
	수소	7.6	8.4
	탈루 등	3.9	3.9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제거	국제감축	-33.5	-37.5

기존 NDC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목표 비교

감축 기술과 해외 감축의 적용이다. 기본계획은 숲가꾸기와 갯벌 복원 등으로 탄소 흡수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오래된 산림을 어린 나무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숲가꾸기의 효과의 적절성은 수년 전부터 논란과 갈등을 빚었다. CCUS(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 기술의 적용은 그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하지만 기본계획은 NDC에 비해 늘어난 11.2백만 톤으로 목표를 잡았다. 해외 감축도 33.5백만 톤에서 37.5백만 톤으로 목표를 늘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조립이나 저탄소 개발 사업을 통한 감축은 아직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준조차 합의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의 감축 의무를 회피하고 제 3세계의 자연과 원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조성으로 제시한 방안들도 문제는 여전하다. 기후적응 부분은 홍수 경보시간 단축과 취약계층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정도가 전부다. 정의로운 전환은 위기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영향 받는 노동자의 전진훈련 지원으로 협소하게 제시되고 있다.

끝으로 기본계획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은 탄소 감축의 부담을 사실상 다음 정부들로 넘겨버리는 목표라는 점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감축량의 75%가 윤 정부의 임기 이후인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즉 지금 정부 동안은 천천히 감축하다가 다음 정부에서 급격히 감축을 실현해서 2030년의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정부의 자기기만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 동안 한국은 탄소예산을 훨씬 초과해서 누적 배출량을 기록할 것이고, 기업과 사회에 대한 탄소중립 메시지도 미약할 것인 만큼 전환의 동력도 상실될 것이다.

윤 정부의 핵발전 사랑이 탄소중립 계획마저 엉망으로 만들고, 정당성은 물론 현실성마저 훼손하는 이 상황은 착잡하다 못해 무력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동료 기후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말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해나가야 하는 과제임을, 그리고 정부보다 지구와 우리의 삶은 더 길고 넓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

## 고리2호기 수명만료, 영구정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

### 이경아

(사)부산YWCA 회원정책국 국장

2015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활동한 YWCA는 뜨거웠다. 원전에 대해 학습하고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렸으며 전국의 YWCA가 부산으로 모였다. 깃발을 높이 들고 고리1호기 정지를 위하여 생명의 가치를 외치며 기도한 결과, 우리는 함께 고리1호기 영구 정지를 끌어내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 2023년 4월 8일 40년 간의 설계 수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영구 정지가 아닌 일시 정지 상태로 2년 2개월 뒤 재가동을 위한 설비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에 따라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가 수명연장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구적 핵폐기장의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핵발전소에 설치하려는 임시 부지 내 저장 시설은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막아

내지 못한다면 부산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핵발전소와 사실상 영구적 핵폐기장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

2015년과 2023년의 상황은 비슷하다. 설계 수명 연한을 다한 노후핵발전소를 더 이상 연장하면 안된다는 시민적 공감과,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보수, 진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어느 곳에도 편향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연대가 부울경 지역을 넘어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해 더욱 조직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국 시민이 지켜야 한다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과 정치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8년 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장,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노력을 하였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집회나 토론회를 열



어 고리1호기 폐쇄와 탈핵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러한 민·관·정의 협력으로 부울경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 탈원전에너지정책을 펼쳤으나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던 전 정부와 핵발전 진흥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를 보면 2015년과 2023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2호기 건식저장시설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원전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전 수명연장 및 건식저장시설 반대' 선언을 촉구하였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을 하여야만 시민들은 신뢰하게 되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한반도 단층 연구 용역 결과, 고리·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활성단층 16곳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핵발전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 고려 단층도 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는 건설 당시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미 전문가들이 수 차례 주장해 왔지만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지진대 위에



멈출 줄 아는 지혜! 멈추어 서는 힘!

건설한 핵발전소 밀집 1위, 인구 밀집 1위 지역이다.

올해 2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저지와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였다. 4월 현재 164개 단체가 함께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인류에게 중요한 진정한 진보는 '멈출 줄 아는 지혜, 멈추어 서는 힘'으로 멈추고 다시 뒤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것이 생명의 역사이고 순리임을 말하였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영구화될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시도 중단'을 핵심으로 3월 인간 띠잇기, 여야 정당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부산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여야당 대표 면담, 후쿠시마참사 12주기 시민대행진, 풀뿌리 시민단체 참가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4월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구의 날 기념 후쿠시마 오염수 기자회견, 부산시장 간담회, 강연회, 포럼과 함께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챌린지, 부산시민을 비롯해 전국에서 30만명을 목표로 반대서명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부산의 고리2호기 폐쇄 시민운동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성숙된 시민과 함께 하는 이 시점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원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할 상황은 아니다.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함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완료에 따른 영구정지를 위해 시민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몇 배로 위험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얼마나 긴 시간을 들여 되돌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고리1호기 폐쇄를 이루어낸 YWCA의 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시 한 번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창조질서 보존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 YWCA 다시 100년, 지역의 자리로부터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2~2023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결의한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공통과제로 'YWCA RE100 운동'을 정했다. YWCA RE100운동은 사용하는 전력을 원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자는 의미의 글로벌 프로젝트 'Renewable Electricity 100'과 YWCA 창립 100주년을 지나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본다는 중의적인 의미의 운동 목표를 담고 있다. 본 운동은 성평등, 청(소)년, 평화의 관점에서 총 4개 범주로 진행되어왔다. 개인 실천인 '나부터RE100', 청소년 당사자 등의 구성으로 함께 실천하는 '우리Y RE100', 지역에서 지역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역RE100', 전국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코리아RE100'이 그것이다.

창립 100주년이었다던 2022년을 지나 창립 101년, 더욱 촘촘하고 구체적인 탈핵·기후·생명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각지 지역 현장에서 운동을 꾸려가고 있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YWCA 지역RE100 활동가 연구조직'을 구성했다. 이 조직에는 탈핵·기후·생명 담당활동가 뿐 아니라 지역RE100

강원	강릉Y 최경선, 춘천Y 이보은, 춘천Y 홍성욱
경기	고양Y 남궁혜경, 성남Y 임은희, 수원Y 변남순, 수원Y 한시원, 안산Y 이채리, 안양Y 김진영, 인천Y 서순아
충청	논산Y 조은숙, 논산Y 김난영, 대전Y 노은정, 천안Y 유지숙, 청주Y 정하림, 청주Y 박은지, 충주Y 김성화
경상	김해Y 배정숙, 대구Y 김민선, 대구Y 박선혜, 진주Y 김은주, 진주Y 윤인주, 창원Y 반혜영, 창원Y 이선미, 창원Y 노정란, 창원Y 심진실
전라	광주Y 오희경, 광주Y 육정은, 군산Y 이명미, 남원Y 박희정, 목포Y 박혜림, 순천Y 이귀선, 여수Y 김예랑, 전주Y 박성희

24개 회원YWCA 연구활동가 35명

운동에 관심 있는 모든 YWCA활동가들도 함께 하고 있다.

본 연구조직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 YWCA RE100운동을 위한 기초자료 학습

- 지역특화 YWCA RE100운동 아젠다 개발
  - 지역의 상황에 맞는 캠페인 및 활동을 위한 자료개발
- 연구활동가에게는 매 회 차 연구과제가 부여되고, 연구과제와 토의 결과는 권역별로 진행될 '2023 YWCA RE100 워크숍'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1차 연구모임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3월 28일(화) 오후 2시, 3월 29일(수) 오후 2시, 3월 31일(금) 오전 10시에 온라인 줌(ZOOM)에서 각각 진행되었고, 2차 연구모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이후 4월 6일(목)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호제(창비, 2022)</li> <li>• 알맹이만 팔아오 알맹이상점, 고금숙, 이주은, 양래교 (위즈덤하우스, 2022)</li> <li>• 10대와 통하는 채식이야기, 이유미(철수와영희, 2021)</li> <li>•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 할 때, 레베카 헨틀리(양철북, 2022)</li> <li>• 원전마을 :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이야기, 김우창 (한티제, 2022)</li> </ul>
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li> <li>2) 기후위기사태,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li> </ol>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신이 속한 회원YWCA가 탈핵기후 분야에서 연대하고 있는 조직</li> <li>• 각 지역에서 탈핵/기후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 혹은 조직</li> <li>• 각 지역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탈핵/기후 운동주제</li> <li>• 2022년 진행한 탈핵기후 운동과 2023년 탈핵기후 운동 진행 상황</li> </ul>

1차 연구과제

1차 연구조직의 1부 순서는 2022년 회원YWCA에서 진행한 탈핵기후 운동과 2023년 탈핵기후 운동과 연구활동가를 소개하는 상호소개 이후 연구활동가들의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만나는 일반시민들에게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무관심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글쓴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 가족, 자녀, 내 자녀의 자녀가 터전으로 사는 지역에서부터 작

은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실천 방안과 이들의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캠페인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겠다.”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 할 때> 연구과제 중, 춘천 Y이보은 연구활동가

“기후위기는 기술적, 과학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정의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기존에 가시화되지 않았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모델이었던 ‘경제(성장주의모델)-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 젠더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기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양Y는 최근 2년동안 고양시 환경정책을 젠더관점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쉽지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기후위기 정책과 실천에 있어 젠더관점을 갖고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연구과제 중, 고양Y 남궁혜경 연구활동가

“정치, 정책, 과학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 노동, 언론에도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확실했다. 특히 ESG 경영, RE100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 시장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2023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 연구과제 중, 청주Y 정하림 연구활동가

1차 연구조직의 2부 순서에서는 소그룹 토론과 토론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주제는 아래 세 가지였다.


- 지역의 주제로부터 전국이 대응하면 좋을 운동
- 지역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강의, 자료, 디자인, 영상, 인력 풀 등)
- 5월 도별 워크숍에서 논의하면 좋을 주제

지역의 주제로부터 전국이 함께 대응하면 좋은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YWCA의 독자적인 목소리 필요 / 안전한 먹거리</li> <li>• 고리원전 / 월성 1호기 • 경기도 36기 가스발전건설 계획 퇴출 마련</li> <li>• 충남의 탈석탄 운동 • 재생에너지 선택권</li> <li>• 에너지 관련 생태학적 인권 관련 주제 논의(에코페미니즘)</li> <li>• 기후와 인권(젠더, 기후약자) • 연대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청소년 캠페인</li> <li>•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관련 시민캠페인(청년·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li> <li>• 청소년 탈핵운동 • 전국Y 제로웨이스트 샵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li> </ul>
지역 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강의, 자료, 디자인, 영상, 인력 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의 인사이트 함양이 필요하다. RE100 활동가의 경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li> <li>• 권역별 아카데미 • 실무 운동가 발굴 (인건비, 교육) • 활동비 지원 / 자원 총당</li> <li>• 강사풀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강사섭외, 강사양성, 전국적 관리)</li> <li>• 강사양성교육 : 전체적인 중점운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육</li> <li>• 보수적인 이사님과 직원들이 봤을 때도 팩트를 찢어주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자료 (영상, 카드뉴스, 만화 등)</li> <li>•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한 강의, 교육자료 지원 필요</li> <li>• 지역에서 강의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강의 자료 요청 • 카테고리별로 강의안, 교안 요청(분리배출, 탈핵 등)</li> <li>• 실무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를 위한 강의, 영상, 자료 필요 • 전국 기후위기운동 사례 공유</li> <li>• 연합회 캠페인 자료 통일 • 전체 캠페인 시 활용 자료 연합회에서 제작</li> <li>• 공통적인 중점운동에 대한 카드뉴스 제공 •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교육</li> <li>• 연합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지역특화랑은 거리가 멀어진다. Y-틴이나 청소년 청년, 그것을 할때만 홍보에 연합회가 함께 한다면 홍보가 더 잘 될 듯</li> <li>• 홍보물품을 만들어 결국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이 발굴되면 물품 등을 공유했으면 좋겠다.</li> <li>• 연합회에서 회원Y에서 지원가능한 물품 확인 → 연결 → 서로 지원</li> </ul>
5월 도별 워크숍에서 논의하면 좋을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 및 과제(책임기)가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권역별 공부 모임(책 읽고 토론)</li> <li>• 책을 읽고 워크숍 진행(개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li> <li>•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 필요(권역별 상이한 주제 논의(사전스터디))</li> <li>• YWCA만의 차별성 있는 활동 논의(신앙을 포함한 활동)</li> <li>• 부산, 후쿠시마에 대한 문제(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미비하고 눈에 보이는 활동이 적어서 도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li> <li>• 충주에 시립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도 차원에서 운동하면 좋겠다.</li> </ul>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차 연구조직 모임은 10개 회원YWCA (강릉, 남원, 수원, 안산,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군산, 남원, 전주)의 연구활동가 13명, 연합회 RE100팀이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함께 모여 진행했다. 1부에서는 1차 토론결과 정리 발표 이후, 이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내용은 정리하여 6월 중 각 권역에서 진행될 YWCA RE100 운동 워크숍에서 발표된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진행상황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전국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할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내용은

5~6월동안 진행될 전국동시다발 YWC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캠페인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의 운동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운동을 회원YWCA 별로, 또 권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역RE100 활동가연구조직 3차모임은 4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ZOOM)에서 진행된다. 3차 모임에서는 6월에 진행될 워크숍에 제안하는 운동내용이 논의된다. YWCA 100년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더 실효성있는 대응을 만들어가는 회원YWCA와 크고 작은 연대들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정상회담

## |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라는 해법과 이를 토대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로서 가해 일본기업 대신 국내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제안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부터 정부의 제3자 변제라는 해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징용문제 해결책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은 30~35%에 머물고, 반대하는 여론은 55~60% 정도로 집계되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거는 직시해야 하지만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지만, 정상회담의 성과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정부, 여당의 평가와 야당, 시민 사회의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3월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완전히 양극단의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의 판을 바꾸었다"고 자평했으며, 여당의 원내총무는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정부, 여당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야당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삼권 분립을 부정한 위헌적 제3자 변제는 헌법

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것이며, 가해 일본기업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구상권 청구도 포기한 '셀프 변제, 굴욕 외교, 외교 참사' 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배경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부담의 대부분을 한국이 떠안는 대신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징용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고, 물컵의 남은 반을 일본 쪽 호응으로 채우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물컵의 남은 반을 채우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한 후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정부의 셈법은 일단 실패한 듯이 보인다.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은 대법원 판결로 변제책임을 지게 된 일본기업의 채무를 우리가 대신 떠안고 일본기업에는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행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한다는 선언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즉 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한국정부가 선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컵의 반을 채울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본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관 리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와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상응 조치만을 내놓았다. 한국이 지불한 비용과 비교할 때 일본이 지불한 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비용을 지급하면서 일본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국내적인 부담을 안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여 경제적인 실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급속한 대일 접근에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며, 한국을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안보와 경제를 위해 역사를 희생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제시 이후의 대일 접근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빛정책)이란 용어를 차용하여 대일 포용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의 대일 포용정책이 결실을 맺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미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쟁취한 법적 성과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상대가 있는 외교협상을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일방적인 외교협상으로 격하시켜 국익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우리가 반을 채운 물컵을 일본이 마저 채워주기를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일본은 나머지 반도 우리가 채우기를 요구하는 듯하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교과서 검증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강제징

용 관련 표현에서 '강제'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의 일본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호응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법적 처리만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 다만 대법원이 배상을 명한 일본기업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정부의 사과 표명과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의 참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실리 외교가 일본에 조건 없는 항복을 하거나, 미일에 종속적인 안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징용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는 현재보다 악화될 공산이 크며, 일본이 한국정부의 해법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민 여론이 정부의 해법을 수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의 해법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의 한일 위안부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협상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은 적이 있다.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도 같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를 재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본에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배상참여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봉쇄해서는 안 되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국민 여론이 수용하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일본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 일본기업의 배상참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의 구상권 유지 등이 현시점의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관계정상화 시도는 한일관계 악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소비자 기만

##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오늘까지만 할인’, ‘100원 달’, ‘매진입박’ 등의 저가로 유도한 뒤 막상 결제 직전에 확인해보면 배송비나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거나, 몇 주(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카드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사전고지 없이 무료 체험이 종료되고 결제 대금이 청구가 되는 사례, 최초 가입할 때는 간편하나 탈퇴할 때는 ‘회원 탈퇴’ 버튼이 잘 보이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가 어려운 경우. 최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피해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전자상거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약 50%가 다크패턴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65세 이상의 노년층(26%)보다는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인 18-29세의 청년층(61%)의 피해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은 디지털 경제 특유의 소비자 피해 행위로 앱이나 웹 상에서 화면 구성 또는 디자인을 교묘하게 설계해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무료 이용 후 자동 결제로 넘어가게 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



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플랫폼 시장의 거대화,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OTT(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음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구독’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증가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통신사도 일반 약관과 필수 동의 약관을 이리저리 섞어 배치해 소비자가 일괄 동의를 누르게끔 하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이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것 등이 모두 다크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다크패턴은 2020년 11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소비자 취약성 개념의 변화와 특성 등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소비자 문제 유형의 하나로 본격 논의되었다. 다크패턴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해리 브리널(Harry Brignull, 2010년)은 온라인상에서 기업들이 다크패턴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환경(웹사이트+모바일앱)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총 1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100개의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서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개의 앱에서 다크패턴이 2개 포함된 앱은 27개(27%), 3개 포함된 앱은 35개(35%)개, 4개 포함된 앱은 15개(15%), 5개, 6개 포함된 앱도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 유형으로 53개(19.8%)였으며, 다음으로 ‘자동 결제’ 유형 37개(13.8%), ‘선택 강요’ 유형 28개(10.4%), ‘해지 방해’ ‘압박 판매’ ‘사회적 증거’ 순 등으로

다크패턴의 12가지의 유형		
1	Price Comparison Prevention (가격 비교 차단)	다른 물건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것
2	Sneak into Basket (바구니에 몰래 넣기)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려 할 때, 구매 과정의 어딘가에서 사용자의 장바구니에 추가 아이템을 몰래 끼워 넣는 것
3	Trick Questions (속임수 질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을 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질문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4	Hidden Costs (숨겨진 비용)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야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몇 가지 추가로 나타나는 것
5	Roach Motel (어려운 해지)	사용자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기 매우 쉽게 만들지만, 그 후에 사용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
6	Misdirection (주의집중 분산)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시키는 것
7	Confirmshaming (감정적 선택강요)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어떤 것을 호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행위로 거절 옵션을 숨겨서 표시하는 것
8	Privacy Zuckering (개인정보 주커링)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이며,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에서 유래
9	Bait and Switch (미끼와 스위치_뺨 척하기)	사용자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시작(명령)했을 때, 본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일(광고 등)이 대신 일어나는 것
10	Disguised Ads (위장된 광고)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콘텐츠나 내비게이션으로 위장하여 클릭하게 하는 것
11	Forced Continuity (강제 연속 결제)	무료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등록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아무런 경고 없이 결제가 연장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것
12	Friend Spam (친구로 위장한 스팸)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SNS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하여, 사용자의 이름으로 광고성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

나타났다. 이러한 다크패턴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에서 다크패턴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기준과 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는 다크패턴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개인정보위원회가 다크패턴 설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논의와 법적제도 마련은 활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은 사생활 보호 동의와 관련된 다크패턴을 정의하고 금지하

는 법안으로 202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최근 유럽연합은 이러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한 바 있다.

다크패턴은 비대칭, 제한, 은밀, 기만, 정보 숨김 등의 방식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최종 선택을 변경시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채고,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안전망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접수할 것을 권한다. 다크패턴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023년에 서울YWCA에서는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정책제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

# 우리 단체 후원회원의 기부금, 모집 등록 대상일까요?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재구조화 자문위원

## 대법원 기부금품법 사건에

### 한국YWCA연합회가 대표로 탄원서 제출해

대구의 한 단체로부터 대법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기부금)이 문제가 되어 단체는 벌금형, 사무총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1,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대다수 단체들의 기부회원 모금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은 무료 공익사건으로 수임하여 1년 여 간 공방을 이어갔다. 기부 회원에 대한 행정 해석과 실무, 모집비용 규제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해외 사례, 국내 공익단체의 모금과 지출 현황을 분석·제시하며 피고인의 무고함과 함께 이 판결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피력했다. 단체들도 힘을 모아, 한국YWCA연합회를 대표로 하여 100여 개의 단체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와 겹쳐 이목이 더욱 집중된 가운데 지난 2월 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각 단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회원 모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법인은 전국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을 하는 단체로, 정기후원신청서, 정기회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회원의 기부금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단체를 운

영하고 있었다. A법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모금도 하고 있었는데, 검사는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뿐 아니라 매월 정회원, 후원회원들이 납부하는 금원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모두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고, A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 지출 비용이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A법인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원은 ‘소속원’들로부터 모은 회비로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설령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중 일부는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를 공제하면 모집비용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였다.<sup>1)</sup>

## 대구지방법원, 종전 판례들과 달리

### 소속원 판단에 엄격한 잣대 적용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소속원은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들과 달리 소속원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A법인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관에 기재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관에 기재된 의무인 회비만 납부하고 있었으며, A법인이 회원 모집 당시 소속 회원으로서의 권리나 의

무를 신청서 기재 또는 구두로 안내하지 않았고, 일부 회원들은 회원이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소속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A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정기회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소속원으로 보게 되고, 그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회원신청 과정이 기부금품법 탈법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모집비용 항변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법 제13조와 제16조는 모집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그 모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즉 모집과 사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폭넓게 해석하여, 기부금품에서 A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홍보비 인건비를 불문하고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1224 판결).

## 대법원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에 적용 안돼”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① A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사람을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A법인에 정기적으로 금품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목적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액’을 정하여 납부한 점, ③ A법인은 이들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칭하였고,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준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A 법인에 ‘정기회원신청서’,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

원자격을 얻게 되고, A법인이 ‘정회원’,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A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절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A법인 소속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판결).

위와 같이 소속원 해석으로 원심 유죄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모집비용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다만, “A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판시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및 홍보비 해석에 있어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은 회원에 관한 정관 규정, 정기회원신청서 등 회원가입 절차,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종합하여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도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위 사항 외에도 활동에 대한 단체와 후원회원의 의견 소통과 정기적인 교류 등을 소속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시민단체, 앞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연대 더욱 필요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비하되기도 하는 오늘날, 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회원을 포함한 회원들의 소속감과 연대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원에게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알리고, 단체의 활동 방향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위 과정에서 회원들을 통해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됨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덩어리 오게 된다.

1) 후원회비는 ‘세법상기부금’으로 분류됨. 기부금품상 기부금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모집 비용 총액 15% 이내로 운영비 사용이 제한됨.

# <나는 신이다>가 남긴 질문들

| 오수경

<드라마의 말들> 저자

지난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사이버 종교의 실체를 충격적인 방식으로 고발해서 주목을 받았다. 다큐가 다룬 4개의 사이버 단체 중 특히 교주 정명석이 저지른 성범죄를 중심으로 고발한 JMS 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JMS 편은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걸고 '엑소더스' 운동을 벌여온 김도형 교수를 비롯하여 "그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용기 낸 '메이플' 등 증언자들을 통해 '신'을 자처하는 정명석의 추악한 성적 범죄를 고발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용기를 낸 증언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반사회적인 사이버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이 아닌 '범죄자'인 이들의 실체가 모자람 없이 드러나길 바란다.

## 꼭 그렇게까지 다 보여주어야 했나

그러나 <나는 신이다>는 재현의 윤리에 관해 고민하게 하는 곤란한 작품이기도 하다. 다큐는 첫 회 첫 장면부터 자극적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카메라는 피해자의 격앙된 얼굴이나 성폭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모자이크 처리 등 별다른 여과 장치 없이 내보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을 '무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로 대상화해 온 사회적 편견과 남성 중심적 시선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반복 전시함으로써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큐의 선정성과 자극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나는 신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MBC PD는 "모자이크 화면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단) 내부인들이 (허위·조작이라는) 방어 논리를 세

울 거라고 생각했다"며 "(선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은 존중하고 공감하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제작 의도를 고려할 때 이번 형태가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제작진이 왜 JMS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다루었는지에 관해서는 8회 '만민교회' 편에 나름의 이유가 나온다.

20년 넘게 믿음을 유지하던 만민교회 남성 신도의 믿음을 2시간 만에 무너뜨린 결정타가 그 교회 스타로 인식되던 여성 신도가 이재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힌 녹음 파일이었던 것. 만민교회에도 또 다른 '메이플'이 존재했던 것이다. 여성 신도들을 향한 성폭력 증언이 그 세계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슬프지만 현실이기도 하니 제작진에게는 강력한 당위가 되었을 것이다. 제작진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고발 콘텐츠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이런 의도는 '선한 의도'로 포장되곤 한다.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하여 그 연출 방식이 무조건 옹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다큐에 관해 다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표한 것처럼 오히려 제작진에 의해 선정적으로 구성된 증언자의 목소리는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휘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아무리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 해도 그들의 증언을 전부 공개할 필요도 없고, 만약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기를 선택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이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보도 준칙(2011)'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2012)'이 있고,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한 이후 성폭력을 향한 젠더적 접근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된 바 있다.


## 우리에게는 더 나은 질문을 할 권리가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피해자가 얼마나 어떻게 '당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닌 '해결적 관점'이다.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 과정에서 미디어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신이다>의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 이전에, (그 사명에 닿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생산자로서 재현의 윤리를 숙고했어야 했다. 그것이 해결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그래야 피해자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피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과 그것을 '도구화'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른다. 그 한 장 차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결

정한 일'이라거나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변명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 이미지를 경유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이버 집단과 그릇된 종교의 문제에 이를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사이버 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피해 증언이 충분하지 않아서였을까? 이제까지 피해 증언이 <나는 신이다>처럼 적나라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였을까? 그럼에도 그런 사이버 집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심각하게 어리석은 것일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는가? 제작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자극적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것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들이밀지만 과연 그러한가?

미국의 평론가 수전 손택은 이미지 소비에 관해 비판한 책 <타인의 고통>을 통해 이렇게 일갈한다. "한번 충격을 줬다가 이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종류의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응 능력을 잃어가게 된다. 연민이 극한에 다다르면 결국 무감각에 빠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통속적인 처방이 내려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이미지는 어떤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매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본 이들을 "관음증 환자"에 머물게 하거나, 잠깐의 각성을 하게 할 뿐, 구조적이며 근원적 고민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잠깐의 주목을 받게 했을 뿐 사이버 집단과 그런 사이버 집단을 허용한 한국교회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더 나아가 종교 자체를 향한 더 나은 질문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즉, 과녁을 맞히지 못하고 애먼 곳에 상처만 낸 화살이랄까.

<나는 신이다>는 그간 '공중파' 방송이 감행하지 못한 선정성의 선을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행 조건을 갖춘 '상품'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태계와 '선한 의도'로 포장한 자극적 콘텐츠가 만났을 때 어떤 효과와 문제가 발생하는지 <나는 신이다>가 잘 보여준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신이다>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 

# 사순과 부활을 기억하는 청년

## | 대학·청년YWCA

2023년 청년토크는 청년 사역자, 청년 신학생, 청년 성도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4월은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달이다. 이번 청년토크는 각자가 생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후 한 편의 글로 정리하였다.

### 언어를 잃은 자들의 언어

마가복음 5장 34절<sup>1)</sup>과 마태복음 21장 14절<sup>2)</sup> 등 성서에서는 잃은 자들의 이야기가 적힌 글로 가득하다. 그들은 분명 입술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언어를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복음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만지는 행동 등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언어와 오감은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중요한 통로다. 그 중 촉감은 세상과 우리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다. 손은 표정이 매우 다양하다. 손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하다. 한때, 핫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에서도 손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등장한다. 얼굴로 보여줄 수 없는 표현들은 손에서 구현된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손길, 당황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손의 모양, 자신의 분함을 드러내려 꽉 쥐려는 주먹. 영우의 얼굴에서 보지 못하는 표정의 풍경이 손끝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앞서 언급한 본문의 여인들, 성전에 나아오는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해 손을 얹으며 동시에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치유하신다. 레비나스를 인용하며 글을 적은 주디스 버틀러가 떠오른다. 우리는 위험에 처한 삶의 불확실함을 알기 위해 언어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는 얼굴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드라마 한 편

드라마와 영화와 같이 창조적인 극들에는 기승전결이 중요하다. 기승전결은 시작-전개-전환-맺음과 같이 시작부터 결말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기승전결은 어떤 작품이 '명작'으로 남을지 '졸작'으로 남을지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명작이라고 볼 수 있다.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 작품을 더 자세히 감상하기 위해 주현절과 사순절을 생각하면 더 풍부할 수 있으나 고난주간 하나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충분히 맛있게 느껴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로마에게서 자유를 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예수님을 시기질투하며 죽음을 모의하는 제사장들 등 여러 가지 시선이 교차하며 고난주간은 시작된다. 고난주간의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며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예수님이 이전처럼 다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민심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시며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린다. 고난주간의 화요일. 경고하시고 논쟁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온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와 비유를 하신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얻을 '혜택'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싶을 것이나 예수님은 '인자가 속히 오리라', '알 수 없을 때에 오리라' 등의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떠나보낸다. 고난


주간의 수요일. 마지막 만찬과 유다의 배신, 겟세마네에서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명분을 마음에 품고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예수님은 제사장 앞에 서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예수님은 목요일 제자들과 민중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신다. 고난주간의 토요일.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며 고난주간은 종료된다. 여기까지 끝난다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는 드라마 한 편은 졸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모두에게 버림받는 베드 엔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에서 모든 상황은 반전된다. 그 결말은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활'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신이 되셨고,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 썰준티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명작이 되셨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우리는 여러 인물들이 되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민중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빌라도가 되고, 죄인이 되고, 요셉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보자. 한 장면 안에 여러 가지 명분과 입장이 교차되고, 그 하나하나가 부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한다.

### 공공성이 결여된 복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는 바빠진다. 공통적으로 '특별'과 '기도회'를 강조하며 기도와 예배 그리고 헌금을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주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현대 교회에서 예수를 멋지게 포장하여 팔 수 있는 그럴듯한 포장지이다. 특별새벽기도회 혹은 저녁기도회, 고난주간에 맞추어 기획한 부흥회에는 예수의 고난이 교회의 입장에서 소비된다. 교회는 먼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죄의식을 자극한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뭘했나?' 이런 뉘앙스이다. 언뜻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공허한 외침이다.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에는 금욕적인 삶이 절정에 이른다. 곡기를 끊고, 미디어 소비를 끊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설정이다. 이렇게 빌드 업을 해놓고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승전 '복'이다. 복을 구하는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결여된 복을 구한다는 게 문제이다. 청년 예수가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은 공공성을 담보한 의지적 행동이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현대 교회의 십자가 여정의 공공성을 결여시켰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 모여서 공허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개인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그만이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노라고.

### REMEMBER ME!

매년 이맘때쯤 돌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 나는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보내고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인 부활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때를 값지게 생각하고 있을까 돌아본다.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바로 죽음이다. 모든 탄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죽음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적인 질서 중 하나다. 사람은 세 번 죽는다. 첫 번째는 숨이 멎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 '영혼의 죽음',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기억의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를 기억할 때 그는 죽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 그렇기에 기억은 힘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하셨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기념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 마가복음 5장 34절 :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2) 마태복음 21장 14절 :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임계점

이사야서 42:1-9



| 김명수

연세대학교회 목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

눈썹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소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소년의 인생주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자신을 희생시켜 내어주는 이야기로, 나무의 아낌없이 주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소년의 이기적인 욕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사랑에 기인하여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하지만, 공의 없는 사랑은 탐욕과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신 사랑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IPCC의 2022년 3월에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1.5°C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를 감축해야 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게 되며, 인류생존에 매우 위협적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생존의 위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심판의 임계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임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땅을 더럽힐 때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땅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인간의 더러운 죄 때문에 인간이 역겨워져서 땅이 자신에게서 인간을 구역질하여 토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은 발을 딛고 살아갈 터전이 없기에 결국 살 수 없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창세기 6장에서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여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며 홍수의 대심판을 결행하셨습니다. 이 시대 1차 산업혁명 이후, 탄소 문명의 시작을 기점으로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이산화탄소 발생과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타락을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실, 홍수나 불과 유향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내버려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때, 그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볼 때, 현재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과

학의 힘을 통한 기술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기술(Climate Tech)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320억달러(약 41조 5천억)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며,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의 활용을 206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학기술만을 맹신하는 것은 기술적용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늘 내포하고 있기에 함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느껴지는 단어인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화장품, 운동화, 건강식품 등 원래 의미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라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진짜 정의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합니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런 발전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이기심과 탐욕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룩한 전환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YWCA의 사역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의식의 대 전환을 알리는 ‘회개와 실천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연결됩니다. 회개운동의 실천으로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적용과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한 탄소감축 캠페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환경교육,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과 정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정부와 기업에 강력한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나갈 때, 때때로 무기력감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희미해

질 때와 기업들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볼 때입니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친환경을 외치며 뒤로는 부도덕한 기업운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게는 오물을 씻지도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배출한 재활용쓰레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달라 지는데...’하는 생각이 분노와 무기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라는 소명과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감에 분노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눈 앞에 꽃 한송이를 보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창조세계와 연결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붙들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YWCA 연합회 활동가 여러분, 당신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서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거리에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력과 돈의 힘, 즉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방식을 넘어서는 걸음으로 보기에 매우 약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거대한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는 생명공동체 운동(Movement)을 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소리 없는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큰 파도와 바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아름답고 거침없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모두를 위한 공정을 포용하자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세계여성의 날은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여권운동가 클라라 체트킨(Clara Zetkin)은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함께 ‘여성의 날’을 정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1911년부터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1917년 3월 8일,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전쟁 중단과 빵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시위는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러시아 제국 차르를 몰러내게 하였고 여성들은 임시정부로부터 참정권을 얻어냈다.

1975년, 유엔은 이러한 여성들의 운동사를 반영하여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로 공표하였다. 3월 8일은 세계 모든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 온, 또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기념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YWCA는 올해 세계여성의 날에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0년 간 한국에서 성평등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YWCA 활동가들을 기념하였다.

## 한국의 현주소, 성평등 민주주의의 역할

그러나 그간 여성들이 한국에서 만들어 온 성평등을 온전히 치하하기에는, 지난 1년 한국의 성평등은 일부 퇴보했다. 20대 대선부터 논쟁거리였던 ‘여성가족부’는 존재의 위기를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조금 진정되는 모양새이지만, 부처의 역할 부여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현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추구해오던 ‘성평등 사회의 달성’이라

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가족과’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진단은 ‘성평등한 사회인 것 같다’는 주관적인 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수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성별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유리천장 지수 또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한다.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올해 한국YWCA연합회는 이렇듯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정권과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단결된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조직위원회로 참여하였다.

3월 4일(토)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여성대회에는 연합회 및 6개 회원YWCA(고양, 인천, 창원, 청주, 파주, 하남) 4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부스를 운영하여 한국YWCA 여성·성평등 운동을 소개하였고, 여성의 날의 상징적인 문구인 ‘We can do it’(우리는 할 수 있다)이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었다. 본 대회에서는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서다미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연합회 활동가들이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서울광장에서부터 광화문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에도 참여하였다.

이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성평등 걸림돌’에는 김



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라니, 이렇게 다시 현실을 마주하였다.

## 회원YWCA 세계여성의 날 활동

회원YWCA에서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개 권역별협의회(경남Y협의회,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15개 회원YWCA(광명, 광주, 남원, 논산, 서귀포, 세종, 속초, 수원, 안양과천군포의왕, 여수, 제주, 진주, 청주, 춘천, 하남)에서는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가두행진 등을 진행했다. 특별히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는 제주경찰청과 함께 여성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회원YWCA 3.8 세계여성의 날 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정을 포용하라 #Embrace Equity

올해 세계여성의 날 조직위원회는 ‘Embrace Equity’(공정을 포용하라)를 주제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영어에서 ‘Equity’(공정)는 ‘Equality’(평등)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공정’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전자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이미 격차가 벌어져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동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시작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 여성들이 참정권 등 동일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것은 ‘평등’에 해당하며, 현재 여성들이 동일한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공정’의 영역인 것이다.

한국에서 ‘공정’의 개념은 오염되었다. 공정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YWCA를 포함하여 많은 활동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현실을 인정하라는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정을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해야 하는 공정은 모두가 사과를 수확하는 결과의 평등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넘어, 여성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50%를 달성하고, 여성 고위공직자가 50%가 되는, 기업의 이사회가 50%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사회를 꿈꾼다.

#Embrace Equity, #공정을 포용하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12주년 맞아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당장 폐쇄! 외쳐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대규모 탈핵 부산 집회 열려

글·편집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에서는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계속운전)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3월 11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맞아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탈핵 한국'을 염원하는 시민 3천여 명이 모였다. 대구, 대전, 울산 등지와 충남, 경기, 광주 전남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행사 참여자들은 '기억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싫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

2015년 2월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폐쇄' 10만 서명을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며 2017년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YWCA는 이날 전국 17개 회원YWCA(광주, 군산, 거제, 김해, 남원,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수원, 울산, 울산,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청주YWCA)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를 외치는 100여 명의 활동가들이 부산 송상현광장에 모여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반대!, 고리2호기 즉각 폐쇄!" 구호와 "핵발전은 죽음이다. 핵발전소 중단하라!"를 외쳤다.

부산YWCA 이경아 국장과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은 전국단위의 연대체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준비위원회'와 부산 지역의 현안으로 새롭게 조직된 연대체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본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부산 탈핵행진에는 현수막 없이 진행하는 대신, 전국



에서 머리띠, 우산 등과 같은 개성있는 행진 소품과 다양한 문구의 피켓을 직접 만들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구를 들고 행진했다.

특별히 탈핵행진 집회의 여는 말씀에는 범시민본부 고문으로 하신규 전 부산YWCA 회장의 발언과 정미라 종교환경회의 천도교한울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제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집회 영상 송출 이후에는 이향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교육홍보팀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아이씨 밴드의 노래 공연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에는 한국YWCA 활동가들이 나서 '핵을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을'이라는 노래와 율동 퍼포먼스로 송상현광장에서 삼전 로타리와 동의 로타리, 서면 로타리로 행진의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 부산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행진이 이어졌다. 송상현광장에서 시작해 세 개 팀으로 나뉘어 삼전로터리와 동의 로터리, 서면로터리를 거쳐 서면 금강제화 앞까지 진행됐다.

10개의 만장과 풍물이 선두에 선 행진 대오는 방송 차량에서 나오는 행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부산 시내를 지나가도록 함께 외쳤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한다,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핵발전은 죽음이다. 핵발전소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부산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 대오를 유심히 지켜봤고, 서면시장 앞을 지날 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에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은 거의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행진 내내 함께 외쳤던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반대를 염원하는 '탈핵 구호'를 외치면서 이날 총 2시간에 걸친 부산 탈핵 집회를 마쳤다. W

# 2023년 YWCA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 장세영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3년 YWCA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지난 3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전국 52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2023년의 YWCA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중점운동 실천을 위한 방향과 사례 공유, 재구조화에 따른 현안 협의를 통해 YWCA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세웠다. (사)대전YWCA 권부남 사무총장의 여는 기도와 (사)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로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의 '에큐메니컬 기독교신앙과 YWCA 사명'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장운재 목사는 에큐메니컬 신앙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신앙적 삶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책임있게 응답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운동이자 세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응답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사회운동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역사 안에서 드러난 에큐메니컬의 3가지 모습('기독교 내 에큐메니컬', '기독교를 넘어선 에큐메니컬', '우주적 에큐메니컬')을 설명하며 기독교인은 교회와 세상을 잇는 신앙공동체로서 세상 구원과 사회참여로서의 기독교의 균형을 잃지 않고, 내 종교를 넘어선 이웃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속한 생명

까지 회복하는 생태적 회심에 이르는 데 총체적 구원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것이 현재 YWCA가 지속하고 있는 에큐메니컬의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100년을 넘어 YWCA의 기독교성과 운동성이 기독교인들의 에큐메니컬 시각과 관점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인간존중에서 생명존중의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장운재 목사의 강연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김종규 대표(주)식스티헤르츠)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용' 강의를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sup>1)</sup>에 도달하고자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전환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사례와 다국적 기업들의 비율을 공유했다. 에너지전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며, 이에 IT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에서는 ESG<sup>2)</sup>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매선택권이나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구매 전담인력 부족,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IT기술 개발과 도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결 과제들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에너지 신사업



에 도전하고 있으며, YWCA가 지금 당장 행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으로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시민들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전국에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펼치며 에너지전환에 힘쓰고 있는 YWCA 사무총장들의 관심과 열의가 뜨거웠고, 에너지 전환과정과 적용에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어 사무회의에서는 YWCA 재구조화에 따른 내,외부 현안을 공유하였다.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최근 후원회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며, 정부의 기부금품, 보조금법 개정 추진 상황을 공유, 법인전환 완료 및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YWCA가 회원 규정 마련과 회원 정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회 후원회 법인사무국 배정미 국장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회원YWCA 법인전환에 따른 부속시설 이전 현황을 공유하며, 2023년까지 52개 회원YWCA가 법인·비법인 전환을 완료한 후, 회원YWCA의 부속시설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합회 시

민운동국 최수산나 국장은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YWCA 한반도 평화행동을 위한 주요 활동과 각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평화행동을 촉구하였다. 연합회 기획조정국 박은실 국장은 법인으로 전환한 회원YWCA 이사회가 거버넌스 구조로서 역할과 책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원YWCA 이사회 종합평가 도구(안)'를 제시하였고, 회원YWCA의 책임있는 기록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연간일정 공유를 통해 회원YWCA의 참여를 안내하였다. 연합회 지역협력교육국 송록희 국장은 2023년 사무총장 해외연수 기획에 따른 해외연수 개요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YWCA 공동기도문으로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폐회하였다.

2023년은 회원YWCA 재구조화 전환의 마지막 해로서, 전국 52개 회원YWCA가 독립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행보에 속력을 가하고 있다. YWCA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 협의한 사안들을 통해 책임있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YWCA 중점운동과 지역특화운동을 개발하여 지역 내에서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1)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석유·석탄 등을 쓰는 화력발전 비용과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출처://news.einfomax.co.kr)  
2)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한다.

# Y-틴을 잃는 것은 곧 YWCA의 Y를 잃는 것

## | 이은혜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소년들이 직접 진행한 기후활동을 소개하였다. 청만세 속 청소년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활용하여 배지, 탄소중립 책자,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활동의 결과물을 보며 활동가들은 청소년 주체성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 서로를 통해 배우기

강연 후, 활동가들은 '23년 Y-틴 운영계

획 나눔' 시간을 가졌다. 활동가들은 서로의 계획을 통해 각 회원YWCA의 활동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특별히 많은 지역의 관심을 받은 회원Y는 YWCA공간이 아닌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산YWCA였다. 활동가들은 지금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꿈꿀 시기인 것 같다고 밝히며, 부산Y의 야외 피크닉 프로그램, 지역행사 참여 프로그램을 자신들에게 맞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서로를 향한 가득한 한대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서로를 마주하던 실무활동가들은 오랜만의 오프라인 행사에서 서로를 향한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활동가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아이스 브레이킹 순서에는 '희망', '기쁨', '여행'을 키워드로 만남에 대한 소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기후 운동

본 워크숍은 23년 Y-틴 중점운동 주제인 '기후와 인권'에 맞춰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연은 최소옥 국사봉 중학교 교사가 진행하였다. 최소옥 교사는 강연을 통해 기후행동 촉발의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한 'REB모형'(책임 있는 환경행동 모형)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후 지식이 아니라, 주체적 운동을 위한 역량, 즉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홍수진 부장은 연합회 청소년 프로그램인 청·만·세(청소년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청

### 2023 Y-틴 운영

2023년에는 총 29개의 회원YWCA가 Y-틴을 운영한다. 작년에 비해 4개 지역의 회원YWCA가 줄어들었다. 코로나 여파와 봉사 활동 규제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Y-틴의 위기는 곧 YWCA의 위기이다. Y-틴을 잃는 것은 곧 YWCA의 Y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Y-틴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YWCA를 지키기 위해서, Y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청소년 운동과 청소년 활동가의 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

# 기독교여성의 연대, 함께 나눔의 의미

## |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년, 성평등, 평화의 관점을 반영한 중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과 기독교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개하는 YWCA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고리2호기 노후원전 폐쇄 문제 등 긴급한 현안에 직면해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오

2023년은 YWCA 재구조화 마지막 해로, 지난 2020년 한국YWCA 정기총회에서 'YWCA 재구조화 정책'을 채택한 후 모든 YWCA가 법인·비법인사단으로 조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카데미 교육도 지금까지 '재구조화'를 주제로 운영, 거버넌스, 책무성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어왔다면, 올해부터는 재구조화 이후 YWCA 본연의 목적인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먼저 에큐메니컬 기독교시민운동체로서의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를 위해 장운재 교수가 'YWCA의 목적문 이해'를 제목으로 강의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목적으로 일하는 YWCA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위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격려했다.

최수산나 연합회 국장은 '2023 한국YWCA 운동정책'을 제목으로 강의했다. 한국YWCA는 에큐메니컬 단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 가치를 공유하고자 국내 및 국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결의하고, 모든 YWCA와 함께 청(소)

염수 실체와 문제점, 방사성물질의 특성과 영향,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 사회를 위해 한국YWCA가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경수 대표는 '굿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제목으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사회회의 역할(방향설정, 자원조달, 관리감독)과 책임(돌봄의 책임, 준수의 책임, 충성의 책임)을 이해하고,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YWCA 거버넌스 유형이 대체로 이사회와 실무진이 분명한 업무분장을 토대로 하는 '협력형 이사회'라고 정리하고 이사회와 사무총장(실무진)의 공유된 책임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의 연대, 기독교여성의 연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국YWCA 이사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 모두의 바다, 안전한 바다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 집결

| 글·편집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저지하라!**

한국YWCA연합회는 4월 6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YWCA 활동가 3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을 펼쳤다. 이날 전국YWCA 긴급행동은 올여름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저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달 굴욕적인 한일 외교참사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자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데 대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45개 회원YWCA와 연합회가 결연히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 집결했다.

연합회 활동가들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울동으로 무대를 연 YWCA 긴급행동은 생명세상을 위한 기도(원영희 회장)로 이어졌다. 원영희 회장은 “십만 년 동안 썩지 않는 핵발전 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정의롭지 못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 기도하였다.

이어서 일본과 접경지역인 제주YWCA의 고미연 사무총장의 발언과 세계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진주YWCA 고명정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고미연 제주YWCA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청정 제주바다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경제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세계인들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볼모로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파괴적 행동을 멈추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고명정 진주YWCA 사무총장은 “10만 서명으로 고리2호기 폐쇄를 이끈 한국YWCA 탈핵생명운동의 힘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도 이끌어 내자”며 “우리 52개 회원YWCA와 연합회가 그일을 분명 이루어 내리라 믿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힘껏 외쳐 큰 박수를 이끌어 내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센터 공동대표의 발언과 청주YWCA 박은지 간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사무국장, 인천YWCA 서순아 팀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각자의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적인지를 집회에 모인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센터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2년 전 발생했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12년 전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시킨 과정에서 나온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이며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핵종은 모두 제거한 것으로 주장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아닌 알프스 제거수라고 불러달라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능핵종을 다 제거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



장에 서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도록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함께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제소를 하고 UN해양법 위반에 대해 제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통연희연구소의 풍물공연도 발언 중간에 구성되어 YWCA 긴급행동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YWCA성명서 낭독 후에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다이인 퍼포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다.

무대에서 파랑천이 흐르고 검은천(오염수를 상징)이 나오고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사이렌이 울리자 참가자들이 모두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누워있는 5분 가량이었지만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곧 모두의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짧지만 긴 시간이었다.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탈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YWCA 연합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 행동을 시작으로 고리2호기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등 다방면의 탈핵기후생명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세종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을 외치다

## | 한기연

(사)청주YWCA 여성환경위원회 실무활동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시청, 승례문 일대에서 무려 3만 5천명의 시민이 거리에 모여 함께 기후정의를 외쳤던 그 날을 기억하나요?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 기후정의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는 여전히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4월 14일 우리는 또 한 번 세종시에 모였다. 논산, 제천, 대전, 충주, 청주, 울산, 부천, 세종, 연합회 YWCA활동가 등 전국 각지의 회원 Y활동가 70명과 전국 29개의 각기 다른 단체와 시민 4천명이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함께 살기 위해 멈추자'라며 기후정의를 외쳤다.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 앞에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파업이다. 기후정의 파업은 지난 1월 26일 YWCA충북도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109개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에 모여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월 기후정의투쟁의 기조와 원칙, 주요 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조직위가 내세운 기후정의 운동은 추상적인 가치 지향이나, 스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스탈핵·탈석탄 슌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신신공항 건설 중단 등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을 전면화하고 이를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하였다. 조직위에는 중부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의 석탄발전소, 송전탑,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신공항, 농어촌 파괴

형 재생에너지 반대대책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뿐 아니라 폭넓은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사)청주YWCA는 4.14 기후정의파업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선교사분과 함께 동네방네 기후행동 줍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기후정의파업을 홍보하였다.

4.14 기후정의파업 집회 현장에서 YWC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후원모금 활동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당일 4.14 기후정의파업 행진 중에는 산업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행동과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상징하는 싸이렌과 함께 다이인(die-in)<sup>1)</sup>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다양한 저항/항의 직접 행동(수성 물감 및 분필 등으로 도로 바닥에 그림/글자 그리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 및 각종 선전물을 산업부 담장과 문에 부착하고 소리 나는 부부젤라, 호루라기, 냄비 등을 두드리면서 항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추가로 연막탄, 담장과 바닥에 수성 물감 칠하기/글씨 쓰기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시각적 액션을 펼친 후 환경부 앞 도로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피켓을 들고 나온 간디학교 학생의 모습, 고3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한 전국 YWCA 활동가 70여 명과 시민 4천여 명의 함성이 4월 14일 세종시의 하늘을 채웠다.

함께 한 울산YWCA 청소년 활동가, 힘든 행진 속에서도 쉼베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우며 함께 응원하던 청소년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기감과 함께 절실함을 느꼈다.

기후위기를 위해 평일, 그것도 금요일,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4월 14일 4천 여명의 시민들이 외쳤다. 더 이상의 무분별

한 개발을 멈추라고! 인간의 기본 생존과 권리를 위해 철옹성 같은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를 외쳤다.

이 외침은, 우리의 외침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기후정의,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YWCA.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1) 다이인(die-in)시위는 참가자들이 죽은 척하는 항의의 한 형태이다. 다이인(die-in)은 동물 권리, 반전, 교통 폭력, 인권, 환경 문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위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행동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위대는 바닥에 누워 죽은 척하며 때로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으로 몸을 가린다. 도로나 보도의 사람의 흐름을 방해해 행인의 주의를 끄는 것이 다이인(die-in)의 포인트다.

# 연합회와 44개 회원YWCA 참여 6천6백만원 모금, 현지 교회 전달

##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 2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 7.8 강진 발생

지난 2월 6일(월)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강력한 지진이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과 시리아를 덮쳤다. 규모 7.8의 강진이 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규모 7.5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후 200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으며 강도 5.4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지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상흔 을 남겼다. 총 57,658명이 사망했고 119,204명이 부상을 당했 다.(2023.3.18.,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기준)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 지진 재난 희생자를 돕는 한국 사람들의 손길

재난 소식은 실시간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전해졌다. 죽 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했다. 한 국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국민들은 튀 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한국YWCA 연합회도 이에 동참하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 모 금>을 진행했다.

### 한국YWCA,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 모금

모금은 약 한 달 동안 긴급하게 진행되었으나,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연합회와 44개 회원YWCA(강릉, 거제, 고 양, 광양, 광주, 군산, 김해,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울, 서천,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과천군포의왕,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충주, 통영, 평택, 포항, 하남)에서 총 66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3월 31일(금) 오전 11시 연합회 A스페 이스에서 모금 전달식을 가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본 성금은 튀르키예 이스탄 불에 있는 세계정교회 에큐메니컬 총대주교좌에 전달되었으 며, 현지 교회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지원된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을 위한 기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 위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에게, 그리고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작은 피조물에게까  
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사  
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조금이나마 무너진 곳을 세우고, 빈 곳을 메우는 도구로 쓰  
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  
니다. 아멘. 🙏

## 성명서

### | 한국YWCA연합회 3.8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

##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불평등과 혐오입니다

2023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100년 간 한국에서 성평등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YWCA 여성 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냉엄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에 YWCA를 세우고 항일운동을 전개하 였으며, 여아와 여성들도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신념 아래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축첩과 조혼 제 도를 폐지하였고 가족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YWCA의 여성들은 '불평등이 당연한 것이다' 여겨지던 시대에도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고,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변 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 근로조건 개선, 소비자 보호, 돌봄 시설 운영, 아나바다 운동, 호주제 폐지 등 선구적인 성평등 운동을 전 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거대한 백래시의 파도와 반페미니즘의 폭풍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불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한국 여성들은 돌봄 노동, 저임금 노동, 성폭력, 가정폭력, 젠더폭력, 의사결정과정 에서의 배제, 가부장제의 폐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정치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 을 부정하고 날조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국가 성평등정책 전담 기구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 혐오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직업을 잃은 여성들,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 는 여성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여전히 가부장제의 관습과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여성들, 그리고 기존의 불평등 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현실에 지지 않고 불평등을 묵과하지 않고 다시 이 시대의 성평등을 외칩니다. 이 시대에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불평등한 현실과 우리를 향한 근거 없는 혐오입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파도를 가르고 폭풍을 헤치며 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던 선배들의 노고와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릅니다.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모두를 위한 세상, 정의와 포용의 세상을 향해.'**

2023년 3월 8일  
한국YWCA연합회

##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차 번째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차 번째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거역적인 결론을 전제해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타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하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술한 문제들을 불문해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산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민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면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의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걸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한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YWCA 성명서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확정지으며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동안, 12년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요구들을 적극 수용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마저 묵인하였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할 정부의 방관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방사성 오염수의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용한 일본정부나 도쿄전력 이 아닌 제3차,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해양 생태계와 이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세계인이 감당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저거설비(ALPS)를 거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다핵종저거설비는 삼중수소를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핵종들을 거르지 못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희석'은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을 줄이지 못한다.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는 지난달(2023년 2월)기준 133만톤이다. 1,066개의 저장탱크에 나눠져 있는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검증 또한 믿기 어렵다. 일본은 저장탱크 중 어느 것에도 64종의 방사성 물질 모두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고 단 7개의 핵종에만 집중하여 검사했으며, 이마저도 바닥에 가라앉은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을 섞지 않은 채 30리터만을 채취하여 진행했다. 이 검사 데이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있으나 도쿄전력은 자신들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손잡고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정부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이해와 타협의 영역이 아니며, 국제적 방사능 테러이다. 이번 방류가 결정된다면 우리 바다는 방사능의 위협에 처할 것이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또한 악화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바다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산물을 유통하고 공급하며 생업을 삼는 사람들,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을 나누는 사람들, 모든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전선 당사자이다.

지난 100년간 정의, 평화,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온 YWCA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찍이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지속해왔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모인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먹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아닌 시민의 소리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적극 저지하라!**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안전을 지켜내라!**

2023년 4월 6일  
한국YWCA연합회

##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2일(목)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YWCA 정문지 '여·세' 편집 책임을 맡아 헌신해주셨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압디엘신학대학 여성신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기동 교수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또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5쪽)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라는 슬로건으로 3월 4일(토)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대회에서는 3.8 시민난장이라는 이름으로 60개의 부스를 운영했고, 연합회는 부스에서 한국YWCA 여성운동 100년 및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인 검은 목요일(Thursdays in Black) 캠페인을 소개하고 뱃지와 엽서를 배포했다. 또한 탈핵기후생명운동으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하였고, 평화통일운동으로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YWCA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전국 회원YWCA는 각 지역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국YWCA가 공동대표로 함께 하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은 3월 7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이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으로 참여한 최수산나 국장은 민간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의 2배가 넘는 양을 군사와 무기 산업이 배출하고 있음을 알리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를 무기국로 만드는 시도이자 남북관계 희망을 저버린 행위를 밝혔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 2023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



3월 8일(수) 오전 11시부터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2023 YWCA 신입사무총장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도 회원YWCA 신입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주제 말씀 '에큐메니칼 신앙과 YWCA 하나님나라운동'(채송희 목사)을 시작으로, 'YWCA 목적과 사무총장의 사명'(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 '2023 YWCA 운동정책'(최수산나 연합회 국장),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지역 분석의 기초'(박동순 연합회 국장)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구정혜 상임이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입사무총장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사무총장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뚜렷하게 알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공

유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 2023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



2023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3월 8일(수) 씽크머니,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 약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한국YWCA가 운영하는 금융·경제교육과 의미, 노동권과 근로 계약,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따른 핀테크 금융·경제교육, 어린이 경제신문을 활용한 N.I.E 금융·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강사교육이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전국 24개의 회원YWCA와 경제교육 유관기관에서 금융·경제교육(씽크머니,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히 올해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한부모가정 대상 사업 '우리가족슈테이(숲+STAY)'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탈핵행진 서울 출정식



3월 9일(목)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서울 출정식 '행진 하자, 핵없는 세상으로!'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진은 3월 11일(토) 부산에서 열린 탈핵행진 전 서울 출정식으로, 한국YWCA는 발언과 핵반대 울동으로 순서에 참여했다. 발언을 맡은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YWCA연합회와 부산YWCA를 비롯한 전국 52개 YWCA 활동가들이 핵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힘으로 고리2호기 폐쇄를 이루어내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청

했다. 발언을 마친 후에 집회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탈핵을 외치며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부터 역사박물관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부산 탈핵행진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12주년을 맞아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시민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당일 17개 회원YWCA(광주, 군산, 거제, 김해, 남원,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수원, 익산, 울산,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청주YWCA)에서 100여 명의 활동가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특별히 탈핵행진 집회의 시작으로 하선규 한국YWCA 탈핵홍보대사(부산YWCA 증경회장)의 발언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는 한국YWCA 활동가들이 '아이들에게 생명을'이라는 노래와 울동 퍼포먼스로 함께했다. 이어서 부산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행진이 송상현광장에서 시작해 세 개 팀으로 나뉘어 삼전로터리와 동의로터리, 서면로터리를 거쳐 서면 금강제와 앞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행진 내내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반대를 염원하는 '탈핵 구호'를 외치면서 총 2시간에 걸친 부산 탈핵 집회를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 세계소비자권리의날 세미나



3월 15일(수) 세계소비자권리의날(WCRD, World Consumer Rights Day)을 맞이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에너지 위기시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

협 11개 단체와 일반시민, 기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에너지 위기시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정책'(에너지연구원 김지효 팀장)과 '에너지위기 극복,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운동 제안'(유미화 전국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이강훈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 2023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3년 YWCA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의 '에큐메니컬 기독교 신앙과 YWCA 사명'의 주제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YWCA의 기독교성과 운동성이 기독교인들의 에큐메니컬 시각과 관점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인간존중에서 생명존중의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종규 대표(주)식스티헤르츠)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태와 정책적인 개선점,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 2023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



3월 21일(화) 2023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이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23개 지역 회원Y의 Y-틴 담당 실무활

동가 23명이 참가하였으며, 주 교육은 2023 Y-틴 중점운동주제인 '기후와 인권'에 맞춰 진행되었다. 먼저 국사봉중학교의 최소옥 부장교사는 '청소년과 기후운동 진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기후운동의 트렌드와 유의점을 소개하였다. 이어 연합회 홍수진 부장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한 기후운동의 다양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연합회 프로그램인 '청만세(청소년들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속 청소년 기후운동 사례를 공유하여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기후운동의 지점들을 소개하였다. 실무활동가들은 23년도 계획과 Y-틴 운동의 고민점, 대안점을 공유하며 각 회원Y의 청소년 운동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 및 공청회



3월 22일(수) 오후 1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YWCA가 연대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청회 전날 초안 공유와 산업계와만 심 여 차례 회담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 △산업계의 감축 목표 후퇴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 목표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및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부족한 기후대응 예산 등이 주요 문제점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오후 2시 공청회장에 참석하여 김상협 위원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기습 피켓팅을 진행하고 "핵발전은 죽음이다. 핵발전소 중단하라!",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한국YWCA를 비롯한 367개 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민



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에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종속외교를 즉각 폐기하라,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최수산나 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이며, 정의와 평화의 첫 발걸음은 공식 사죄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문은 42쪽)

### 2023 YWCA 신입이사교육



3월 30일(목) 오전 10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2023 YWCA 신입이사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도 회원YWCA의 신입 이사 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YWCA의 목적문 이해'(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2023 한국YWCA 운동정책'(최수산나 연합회 국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 발전'(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대표), '굿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YWCA 이사의 역할과 책임'(김경수 빈손체육공익경영센터 대표)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혜정 대표는 강의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보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는 창조질서보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단체'임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모금 및 전달식

튀르키예 동남부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



리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연합회 및 44개 회원YWCA의 참여로 총 66,000,000원이 모금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3월 31일(금) 전달식을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모금액은 세계정교회 에큐메니컬 총대주교좌(이스탄불)를 통해 현지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 4월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3일(월)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연세대학교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명수 목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임계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또한 4월 20일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수명 다한 고리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6쪽)

### 후쿠시마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

한국YWCA연합회는 4월 6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YWCA 활동가 3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행동'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생명을' 곡에 맞추어 연합회 활동가들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생명 세상을 위



한 기도로 이어졌다. 원영희 회장은 “십만 년 동안 지 않는 핵발전 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정의롭지 못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 기도했다. 이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모두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



4월 8일, 고리 2호기 핵발전소 수명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에서 정당과 종교,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각각 발언하여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절차 돌입이 마땅함을 주장했다. 당일 연합회와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고리 2호기의 40년 운영기간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인데,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인근에 사는 수십만의 주민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을 밝히며 고리 2호기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청했다.

**씽크머니 협약식**

한국YWCA연합회는 4월 11일(화) 페이지명동에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금융교실’의 협약식을 개최하고, 씨티재단 후원금 약 3억 4천만원(미화 25만 달러)을 전달 받았다.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지난 17년 동안 60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변화하는 금융환



경에 맞춘 금융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에는 24개 회원YWCA와 금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하여 기존 교육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에 어린이 경제신문을 배포하여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故이명혜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故이명혜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가 4월 14일(금) 오전 11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명예연합위원, 서울YWCA 위원, 연합회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이명혜 증경회장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원로 목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귀향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조은영 부회장(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이 기도, 이종임 이사장(YWCA복지사업단)이 추모사를 낭독하였다. 마산YWCA 실무활동가로 시작하여 40여 년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셨던 고 이명혜 증경회장의 삶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4.14 세종 기후정의 파업**



4월 14일(금) 오후 2시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4천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 파업을 실행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촉구하는 사회적 파업이다. 논산, 대전, 부천, 세종, 울산, 제천, 청주, 충주 YWCA와 연합회 활동가 70여 명과 전국 29개 단체와 시민 등 총 4천여 명이 참여해 “함께 잘 살기 위해 멈추자”라며 기후정의의 외쳤다. 당일 집회 현장에서 YWCA활동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2023 키다리학교 실무자 워크숍**

‘2023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4월 15일(토) 오후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는 총 7개 회원YWCA에서 2023 키다리학교 실무활동가인 키썸과 자원활동가 크썸, 연합회 활동가 3인이 참석하였다. 퍼실



리테이션 교육은 김대영 키다리TF 위원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방식 배우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어 워크숍 사전과제로 주어진 ‘키다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감상평으로 2023 키다리학교 활동계획 나눔과 연대활동 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청소년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비전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 1. 1 ~ 2023. 4. 1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배정미 김병찬/임정임 김수연 신성균 안정희 이주영	133,000
기타	바자회 수입	123,000
<b>합계</b>		<b>263,000</b>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 2. 16 ~ 2023.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기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혜경 나척더르즈들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성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솔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진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배자 정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민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만성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2,415,000
<b>합계</b>		<b>2,415,000</b>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해구호 모금**

(2023. 2. 13 ~ 2023. 3. 2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미선 김병찬 김수연 김지영 김지영 김진 박문경 박은애 박효정 배옥희 송석호 안정희 원영희 윤은혜 이유미 이종은 이주영 이지윤 이한빛 이해련 전선녀 정숙자 정연경 조은영 조은희 조인숙 최향순 황미선	1,380,000
기타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충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연합회	64,620,000
<b>합계</b>		<b>66,000,000</b>

## 경인·강원권역

### 강릉YWCA

최경선 간사

#### 강릉YWCA 하임찬양단 특송



2월 2일(목) 세인트컨벤션에서 강릉시기독교연합회 신년조찬기도회가 열렸다. 강릉시기독교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강릉시정을 위한 '신년조찬기도회'에 강릉YWCA 하임찬양단이 참석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는 곡으로 특별찬양을 하였다. 하임찬양단은 2022년 1월 창단하여 강릉YWCA 주요 행사에 특송을 담당하고 강릉시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강릉YWCA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 동해YWCA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3월 9일(목) 오후 5시 동해현진관광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사)동해YWCA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동문교회 주기중 목사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축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17·18대 회장님 이·취임 서약과 함께 심규언 동해시장과 이동호 동해시의장의 축사, 동해YWCA 최순옥 창립(명예)회장의 격려사, 전 한국YWCA Y-턴 박한나 회장의 축가가 이어졌다. 이후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며 동해YWCA의 창립목적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호풍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



(사)서울Y는 3월 14일(화)부터 23일(목)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Y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 기념 -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를 회관에서 열었다. 최지은 작가, 홍지아 교수, 위근우 평론가, 김수아 교수가 각 회차 강사로 함께했으며, 성평등 미디어 실태와 다양한 미디어 담론을 살피고 성평등 미디어 리더러시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세상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미디어 속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속초YWCA

김다미 간사

#### 3.8 세계 여성의 날



속초YWCA는 3월 8일(수) 오후 1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과 여성,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속초 여성친화도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속초시청에서 출발하여 3.8km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여성들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뺨'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홍보물품과 함께 나누었고 속초시장과 속

초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였다.

### 원주YWCA

최은미 간사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3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원주시 중앙동 농협 앞에서 여성의 날 행사로 원주YWCA 인지도 설문 조사 및 장미꽃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수복 회장이 발언을 맡아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차별을 넘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차별의 종식과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였다. 원주YWCA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 권리와 청소년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사)인천YWCA

서순아 팀장

#### 인천YWCA 청소년 운동의 전개 방향 간담회



2월 10일(금), (사)인천YWCA 미래희망위원회의 주관으로 청소년 운동에 관심 있는 위원과 교사, 지역전문가, 청소년이 함께 모여 현재 학교 내 청소년 동아리 상황을 진단하고, 인천YWCA 청소년 운동의 전개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춘천YWCA

이지연 간사

#### 홍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 개강



춘천YWCA는 3월 7일(화)부터 3월 16일(목)까지 8일간 홍천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문제,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경기권역

###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사)고양YWCA는 3월 2일(목) 17명의 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중부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리터러시 강사인 조진화 교수가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을 강의하였다.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호소력 있는 성명서를 쓰는 법, 기자들이 원하는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여러 사례들과 더불어 강의하면서 활동가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4월에는 활동가들이 작성해

은 성명서와 보도자료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지도를 받으면서 자료작성에 대한 활동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광명YWCA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광명YWCA는 2월 10일(금) 오후 4시에 광명YWCA 배움실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는 광은 부회장의 인도와 이승봉 목사(한울림교회)의 '전쟁의 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참석 회원 전체가 고백과 성찰의 기도로 개회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본회의에서는 한 해 동안 Y에 헌신한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장과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어서 2022년 감사 및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공천위원 선출과 회칙 개정 등을 진행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봄맞이 웃놀이 대항전**



남양주YWCA는 3월 8일(화) 구직회원 동아리 모임인 백합회에서 봄맞이 웃놀이 대항전을 진행하였다.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우승을 목표로 팀별 대항전에 열정을 다해 즐겁게 임하였고 우승팀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돌봄과 살림 업무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웃놀이를 통해 동료들과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

졌으며 실무 활동가들에게 YWCA 소속감을 심어주고 동아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부천YWCA 여성노인들의 건강운동치료**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부천YWCA 회관에서 여성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3월 2일(목)에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진행 중에 있다. 이 운동치료는 부천Y 청년활동가의 제안으로 기획되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은 '만성통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건강할 권리아말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운동치료는 통증과 근골격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회원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 이번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일상에서도 운동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재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성남YWCA** 박미선 간사

**사단법인 성남YWCA 창립총회**



3월 28일(화) 성남시의회에서 '사단법인 성남YWCA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1988년 창립 이래 올해로 35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성남YWCA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가졌다. 회원이 중심이 된 하

나의 공동체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성남YWCA는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시민의 권리와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속가능한 독립법인체로 굳건히 서고자 한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3.8 경기여성대회, 성평등 정책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3월 7일(화) 수원역 로데오문화광장에서 제115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제19회 경기여성대회가 열렸다. (사)수원YWCA 한금진 회장은 YWCA 경기지역협의회 대표로 발언에 참여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소할 것,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및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모두의 존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성 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경기여성대회는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를 주제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장애 여성의 목소리, 성평등한 경기도, 윤석열 정권 규탄, 소수자의 목소리 관련 발언이 함께 진행되었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콜로키움 '재난 상황에서 인권을 말한다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3월 7일(화), (사)안산YWCA는 본회 강당에서 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인권을 말한다 - 코로나19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사)안산YWCA는 나이, 성별, 국적, 직업, 장애, 종교 등으로 차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반복되는 참사 속 시민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출발을 위한 성찰과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문찬미 간사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창립 37주년 감사 예배**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3월 14일(화) 오전 10시, 5층 회관에서 제37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각 부속기관 선임간사 이상의 실무자들이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케이크를 커팅하며 창립 37주년을 기념했다. 안양YWCA는 1986년부터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목적으로 11명의 기독교여성들이 모여 안양지역에 씨앗을 뿌리고 여성인권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에도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열정과 비전으로 전문 운동체, 여성 운동체, 기독교 운동체, 회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원운동체임을 자각하고 소통을 통하여 좋은 세상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고자 한다.

**(사)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의정부YWCA새일센터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이정부YWCA새일센터에서는 '정리수납전문가 1급, 2급 자격과정'이라는 교육을 통해 정리수납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자격과정의 교육기간은 3월 13일(월)-3월 27일(월)이다. 현재 교육생 15명 전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급 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돌발 상황과 대처능력을 교육할 예정이며 또한 정리수납전문가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리수납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남YWCA** 김예진 간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하남YWCA는 올해 초 하남시 공모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민간단체로 선정되어 앞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매달 감시단 활동을 펼치게 된다. 3월 13일(월)에 하남시청 앞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자원봉사자 총 10명이 신장(구)사거리 점검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2인 1조로 나누어 청소년유해업소를 20여 군데를 방문하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금지 및 고용금지 스티커 배부 및 술,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하남YWCA는 감시단활동 외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및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캠페인, 지역사회 청소년보호관련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사)논산YWCA 중장기발전 비전 워크숍**

(사)논산YWCA는 2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장기발전 비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2차로 진행한 워크숍은 실행 임원과 법인사무국, 부속시설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민하고 연구하여 '가치있는 시민운동 역량있는 논산YWCA와 함께' 라는 비전과 사명, 핵심역량, 핵심가치를 도출한 1차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는 빈손채움의 김정수 대표가 함께하였으며 강의를 통해 논산YWCA의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인 전략기획 설계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전략적이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2023 대전YWCA 이사·위원장 워크숍**



3월 15일(수) 11시 심포니교회(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대전YWCA 이사·위원장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개회 예배로 시작되었으며 '밥퍼 목사'로 유명한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의 영성회복을 위한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으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는 정혜원 회장의 진행으로 대전YWCA의 의미와 목적,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과 생각 나눔이 이어졌으며 대전YWCA이사,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세종기후행동캠페인**



(사)세종YWCA에서는 3월 10일(금)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주변에서 기후행동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세종기후행동캠페인 활동은 시민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고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2023년 세계기도일 예배**



제천YWCA에서는 3월 3일(금) 오전 11시부터 성광교회(김정일 담임목사)에서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 들었다"(엡 1:5-19)라는 말씀으로 제천에 있는 5개 교단 10개 교회에서 60여 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은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의 모든 여성 기독교 신자들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교파를 초월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올해는 대만 기독교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기독교연합회 여성교인들이 함께 읽고 세계 각지에서 합심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진행된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는 이숙희 제천지역장(제천YWCA 회장)의 인도와 명랑교회 실버취업단의 봉헌취업, 성광교회 특송으로 함께 하였다.

**천안YWCA** 광효정 팀장

**2023 '집중회원증모 나눔문화축제 발대식'**

3월 23일(목) 천안YWCA는 '집중회원증모 나눔문화축제 발대



식'을 진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을 진행하는 일들을 선전하고 동참하는 회원들을 증모하고자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천안YWCA 구성원인 이사, 본부, 부속기관이 6대대로 구성되어 달성목표를 정하고, 대대별로 대대명 및 구호를 선정함으로써 목표달성의 의지를 고취시켰다. 이번 발대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회원을 증모함으로써 천안YWCA의 선한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사)청주YWCA 이사위원연수**



3월 14일(화) (사)청주YWCA 이사위원연수가 청주시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이사위원연수는 2023년 (사)청주YWCA가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여세(여성들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종혁 교수(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질문으로 캠페인 하라'라는 제목의 강의에 이어서 '플랫폼형 회원(시민)운동과 YWCA 그 의미와 방안 찾기'라는 제목으로 박은실 국장(한국YWCA연합회 기획조정국장, 교육학박사)이 그룹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하여서는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 (사)청주YWCA의 운동이 완성되고 이것이 우리가 여세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2023년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엄정옥 충주YWCA 직전회장이 그동안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주시 물의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 후 충주YWCA 회원 및 시민 50여명과 함께 미리 만들어 발효된 EM흙공을 충추천에 투척하여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 (사)거제YWCA 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2월 22일(수)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제17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아동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 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 캠페인에서 거제시 관내의 관공서 및 시설, 상가 80여 곳을 방문하여 아동 성폭력 추방 및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과 리플렛을 전달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아동 성폭력 추방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김해YWCA 백정숙 부장

### 매월 8일은 일상의 캠페인!



(사)김해YWCA는 2월부터 매월 8일에 '일상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60%가, 가정폭력상담건수는 14.3%이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형태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듯이 모든 형태의 폭력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근절이 필요하다. 이에 (사)김해YWCA는 매월 8일을 '일상의 캠페인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3월 7일(화)에는 경남YWCA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경남대학교(마산) 정문 앞에서 세계여성 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3월 8일(수), 4월 8일(토)은 일상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 (사)대구YWCA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개최



(사)대구YWCA는 3월 9일(목) 오전 11시, 6층 강당에서 기독교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대구YWCA에서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분기별 둘째 주 목요일에 기독교시민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Y', 'W', 'C', 'A' 4개의 주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주제설교의 시간으로 1회 차 'Y'편은 반성은 목사(명덕교회 담임)

가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으며 새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 (사)마산YWCA 한글 놀이 원데이 클래스 개강



(사)마산YWCA는 문해력 운동 3기에 앞서 원데이 클래스를 개강하였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 수업은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3월 11일(토)에는 '맛있는 이름 만들기' 수업은 과자를 이용해 글자를 만들며 한글에 대한 재미와 간식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3월 18일(토)는 두 번째 원데이 클래스로 '반딧불 <동시 그림책>' 수업으로 함께 그림책을 보며 숲 그림그리기, 숲 노래와 율동하기, 그리고 달의 모습이 왜 달라지는지 과학적인 원리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사)마산YWCA 문해력 운동 3기 '한글아 놀자' 회원 프로그램은 4월 29일(토)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총 12회로 운영된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 대행진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는 '안전한 도시 부산!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 시민대행진'이 부산지역 160여개의 시민단체와 울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단체들의 참여

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은 전국 회원YWCA인 서울, 부산, 군산, 거제, 김해, 수원, 익산, 울산,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청주, 사천의 실무활동가들을 비롯한 자원활동가들까지 함께 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노후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영구적 핵폐기장 결사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막아내자!'를 외치며 송상현광장부터 서면상상마당까지 1.4km의 거리를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 2023 사천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새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실시



(사)사천YWCA는 3월 21일(화) 사천시 벌리동 학교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및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계도활동을 하였다. 계도활동으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추후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변종 톱카페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년들의 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톱카페 분포도를 작성하여 감시활동을 세심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YWCA 남수정 부장

###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동YWCA회원위원회는 3월 21일(화) 2023년도 청소년 위생

용품 후원을 진행했다. 올해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사업의 기금은 개미후원자들의 소액기부와 뜻있는 지역 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역의 중학교 복지사와 교장의 추천을 통해 명단을 제공 받아 매월 또는 격월로 학생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물품 제공시에는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을 위한 작은 배려도 이루어진다. 올해는 기금확장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며, 이후 학생들을 선별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양산YWCA** 여두연 간사

**민들레동요학교 개강**



3월 7일(화)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멈추었던 민들레동요학교가 긴 방학을 끝내고 다시 개강하였다. 민들레동요학교는 동요를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어르신들은 동요학교를 통해서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삶의 여가를 즐긴다. 민들레동요학교는 배움에 그치지 않고 병원환우, 의료진, 장애시설, 요양원 등을 찾아가는 위문공연으로 음악의 즐거움과 행복의 공감대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3 (사)울산YWCA Y-틴 '암니옴니' 인준식**



2월 22일(수) (사)울산YWCA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Y-틴 '암니옴니'의 인준식이 진행되었다.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덕순 회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3년 Y-틴을 이끌어갈 임원을 임명하고, 2023년 (사)울산YWCA가 청소년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중점운동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울산YWCA는 50주년을 향한 비전 선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활동가가 만드는 카드뉴스 'Y라노'도 정기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주년 기자회견&피켓팅**



3월 9일(목) 진주 지역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연대단체인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주년 기자회견과 단체 피켓팅을 진행했다.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인 김장락 교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고명정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끝으로 참여자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폐쇄하라!'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후 (사)진주YWCA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차로 등에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사)진해YWCA** 공효성 간사

**지구를 살리는 EM활용법 특강 및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사)진해YWCA는 3월 18일(토) 오후 2시 팔용동 소재 성도교회를 방문하여 EM 특강과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더하여 2050넷제로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EM을 활



용한 살림법과 함께 기후정의와 RE100 등 YWCA 기후위기 중점운동 홍보를 진행했다. 성도교회는 기후위기와 환경관련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정도로 지구와 환경살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매주 금요일 창원 옹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진행하는 창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 동참 할 것도 제안하였다. 특별히 사업부 위원 이사 2인이 함께 하여 특강이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홍보용으로 가지고 간 EM 환경 상품 30점을 판매하고 후속 구매를 약속받았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사)창원YWCA 키다리학교 사전모임**



3월 18일(토) 10시,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2023 키다리학교 사전모임을 진행했다. 키다리 회원은 총 14명이 모집됐으며 키다리 청소년 11명, 키캠 1명, 위원 3명이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표(별명, 관심사, 기대되는 점) 채우기로 시작된 사전모임은 모든 참석자의 자기소개, 담당 간사의 키다리학교 설명, 청(소)년 위원장의 마음열기 프로그램, 키다리 친구들의 활동계획 논의 및 인준식 준비로 진행됐다. 회장, 부회장만 선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획팀, 영상팀, 홍보팀을 구성해 모든 키다리 친구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으며 팀 별로 올해 활동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다. 기획팀은 4월에 있을 '쓰레기 없는 피크닉' 실행 방안을, 영상팀은 활

동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 개설, 홍보팀은 인스타 계정 개성과 카드뉴스 제작 계획을 밝혔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사)통영YWCA 활동가 교육**



(사)통영YWCA는 3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다목적실에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을 맡은 계경화 사무총장은 (사)통영YWCA 목적과 역사 및 중점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운동에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통영YWCA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YWCA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포항YWCA** 김민경 간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반대 캠페인**



3월 10일(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포항시민행동(포항YWCA 등 6개 단체 공동대표)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12주년을 맞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일본정부가 올해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규탄 및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농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오염수 방출에 대한 총량 기준이 없어 결국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축적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포항YWC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외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펼칠 계획이다.

##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 릴레이 나눔의 밥상 진행



3월 17일(금) 릴레이 나눔의 밥상 사업이 진행되었다. 광양시새마을부녀회장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 참여하여 직접 조리한 밥, 국, 3찬의 도시락과 광양시푸드뱅크에서 지원한 부식과 함께 저소득가정 50세대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였다. 릴레이 나눔의 밥상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양섭취 및 식습관 관리에 취약한 가정에 매월 직접 조리한 도시락과 부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방지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광주YWCA** 오희경 국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주년을 앞두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광주YWCA는 3월 9일(목) 오전 11시에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광주YWCA는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과 연대하여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핵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핵 발전 중단이며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회견 직후에는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군산YWCA** 황수미 팀장

### 군산YWCA ‘1차 탈핵캠페인’



군산YWCA는 3월 24일(금)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군산 이성당 맞은편 광장에서 군산Y 실무자 및 이사 총 10명이 참석하여 ‘1차 탈핵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군산YWCA는 실무자 및 이사진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찍이 핵발전의 위험을 인지하고 매년 탈핵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모두가 안전한 탈핵 세상이 앞당겨지길 기대하며 탈핵 캠페인을 마쳤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한이 있어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기대해 본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3·8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참여

3월 8일(수) 전주풍남문광장에서 ‘돌봄·연대·정의,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이 열려, 남원YWCA도 함께 하였다. 올해 114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은 세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화재 사고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원YWCA와 30여 곳 기관은 함께 풍남문광장-객리



단길-전북도당을 걸으며 일상 속 성 고정관념, 성차별·성희롱·성불평등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세계여성의 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사)목포YWCA 월례기도회



(사)목포YWCA는 3월 27일(월) 오전에 본부 회관에서 이사 및 실무자들이 모여 월례기도회를 진행했다. 월례기도회에서는 이사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현재도 전쟁과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며YWCA를 위한 기도와 함께 이사·실무자의 영육간의 강건함, (사)목포YWCA의 목적을 함께하는 후원교회와 기관들의 부흥과 발전, 본부와 부속시설 사업과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월례기도회를 통해 (사)목포YWCA가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기독단체로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기업협약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신선)는 지난 2월 10일(금) 서귀포신협 2층 회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귀포신협은 채용·승진·임금 등에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고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여성친화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 (사)순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기후위기! 생명회복을 노래하다”



(사)순천YWCA는 3월 23일(목)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사)순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정기연주회로 생명의 소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아픈 소식을 전하고 함께 개선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노래하였다. 선언만 난무한 기후위기 대응 대신 변화와 공존의 리더십으로 조금은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선한 행동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까지의 확대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아나바다 운동을 최초로 시작했던 YWCA 안에서 생명의 회복과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다시금 생명세상을 위한 올림이 순전을 비롯하여 평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걷기대회



(사)여수YWCA(회장 조애숙)는 3월 8일(수) 미평공원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수시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걷기대회는 3월 8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미평공원 주변 옛철길 3.8km를 걷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3.8km를 완보한 참가자들에게는 빵과 장미 화분이 선물로 주어졌다. 참석자들은 식전행사에서 성평등사냥독을 통해 지난 100년간 한국에서 성평등 역사를 써 온 한국YWCA 여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현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로 인해 불평등과 혐오가 가중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익산YWCA** 강지수 간사

익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23년 개학기 민·관·경 합동 특별 단속활동



익산YWCA는 3월 7일(화) 개학을 맞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시청 및 익산경찰서와 함께 특별 단속활동을 하였다.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가와 변화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니며 단속활동을 진행하였다. 특

별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의 유권해석' 안내문을 전달하고 계도·단속활동을 하였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지구와 마음을 잇는 탄소금식 7주 프로젝트



(사)전주YWCA는 사순절 기간인 2월 22일(수)부터 4월 8일(토)까지 '지구와 마음을 잇는 탄소금식 7주 프로젝트' 운동을 실시한다. 탄소금식 7주 프로젝트 운동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실천 운동이다. 지구에 고통을 주면서 누려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지구의 아픔을 털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경건운동이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문을 묵상하며 매주 주제별 탄소금식 실천을 하고 활동 내용을 사진에 담아 이메일로 보내면 10명을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제주YWCA** 진애령 간사

(사)제주YWCA 3·8 여성의날 맞이 합동 캠페인 진행



(사)제주YWCA는 3월 7일(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한라대학교에서 (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와 (사)제주YWCA통합상담소와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차별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 내 폭력범죄 실태 및 예방에 대한 주제로 전개되었으며, 제주 내 폭력범죄 실태 파악 스티커 부착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제주도가 인구당 범죄율 전국 1위/5대 범죄 검거율 전국 상위권이라는 사실에 무지했으며 폭력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도내 폭력범죄 발생률 하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QR코드를 스캔하여 동영상 시청해보세요.



#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아보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일반건강관리: 모든 중증 장애인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사실 통지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를 작성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문의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